

당노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위장운동장애

당뇨병 환자에게서 생기는 위장운동 장애는 자율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식도, 위, 소장, 대장, 췌장의 담당기능에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 장애는 당뇨병 환자의 약 3/4에서 볼 수 있으며 식도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침범할 수 있다. 위장운동장애는 대다수의 당뇨병 환자들이 겪는 흔한 질환이지만 방치해 두면 불편감 뿐 아니라 혈당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당뇨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위장운동장애를 알아보자.

장기별 위장운동장애 검사

위장 : 위배출능검사 - 음식물 섭취 후 위에서 소장으로 배출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대장 : 대장운동 검사 - X선에 표지되는 캡셀을 섭취후 대장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담낭 : 담낭운동 - 담낭의 수축능력을 검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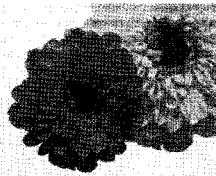
당뇨병성 위장운동장애에서 느끼는 증상

당뇨병에서 위장운동장애의 증상은 심장통증에서 연하곤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당뇨병 환자의 75%가 변비, 복통, 구역, 구토, 연하곤란, 설사 또는 변실금 등의 소화기 이상증상을 반복적으로 느끼는데, 이때 자율신경계의 이상인 위장운동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위무력증

배가 늘 더부룩하며 메스껍고 쉽게 포만감에 빠지고 위 배출시간이 지연되어 케톤산혈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오심과 구토, 식욕부진, 조기포만감, 복부팽만감 등의 증상이 느껴진다. 특히 음식물의 흡수량의 변동과 음식물이나 약물이 위장에서 흡수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불규칙해져 혈당조절이 불량하게 될 수도 있다. 치료는 위배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물을 중지하고 섬유소와 지방이 적게 포함된 식사를 적은 양으로 자주 섭취한다.



연하관란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갖고 있는 당뇨인들의 경우 식도운동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거나 가슴앓이를 호소한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여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흡연과 음주, 오렌지 주스 등을 피해야 한다.

복통

당뇨병성 위장운동장애시에는 여러 형태의 급·만성 복통이 나타날 수 있다. 주로 혈당조절이 불량하거나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데, 만성 복통의 경우에는 당뇨병성 감각신경병증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오심과 구토

당뇨인의 경우에 오심과 구토는 대부분 위 배출지연이나 위 정체의 결과로 발병한다. 이러한 경우 구토 등으로 위를 비우면 호전된다. 또 불규칙한 위 수축으로 초래되는 경우는 전자와는 반대로 비정상적인 수축을 억제하는 치료를 실시한다.

변비

변비는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의 60% 정도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증상으로 자율신경 기능장애에 의한 대장운동 저하에서 발생된다. 치료는 내과적인 치료가 주를 이루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위장관운동 촉진제 및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제나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변을 묽게하는 변비약 또는 대변량을 늘리는 약을 사용한다.

당뇨병성 설사

대부분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이환기간이 오래된 환자에게서 발생하는데, 수 시간 또는 수 일간 계속되며, 보통 식후나 야간에 악화된다. 설사와 변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발생원인으로 는 췌장의 기능부전, 장 운동의 변화, 장내 세균의 과다성장, 담즙산염의 변화, 자율 신경병증에 대한 장 분비의 증가 등이다. 또한 소장 의 운동 기능 이상과 소장에 분포하고 있는 교감신경의 손상으로 소장에서의 수분과 전해질의 흡수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치료 전, 항문괄약근 기능이상이나 대변실금과 구분해야 하며 설사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24시간 대변의 양을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항생제 치료를 먼저 시도하고 효과가 없으면 장내 분비물을 줄이는 치료를 시도한다.

대변실금

설사와 혼동되기도 하며 원인은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된 항문괄약근의 약화이다. 치료는 대개 설사와 동반되므로 설사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지사제를 투여하거나 훈련을 통하여 항문괄약근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당뇨병성 위장장애의 치료는 첫째 철저한 혈당 관리로서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을 때부터 혈당 관리를 통해 위장장애로 합병되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